

계열화 체제의 시발점

● 이상한 현상들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현황은 어떤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품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경향이다. 국가경제의 발전과 개인소득의 증가로 구매력이 증가하고 외환보유가 많아짐에 따라 통화량의 팽창으로 화폐가치보다 상품가치에 우선권을 두기 때문이다.

이상한 현상중의 첫번째는 추석을 향한 물가동향에서 모든 상품의 가격인상 추세에도 불구하고 양계산물만이 가격의 하락세를 나타낸 사실이다. 국가경제적인 측면에서 고찰할 때는 상품의 가격하락이 매우 반가운 일이지만,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닭고기와 계란만이 왜 가격이 떨어지는지 느끼는 것이다. 他 상품에 비하여 양계산물은 계절적인 소비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체념하고 있지만 모든 상품의 가격이 상승세에 있는 때에 하락하고 있는 우리의 상품에 대해 어쩔수 없는 무책(無策)의 무능력을 우리는 이상한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닭고기의 추석(?)은 말복이며 말복이 지난 뒤 추석사이의 가격하락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는 자세와 추석을 열흘 앞둔 현재 특란가격이 32원으로 하락되었다는 사실보다 좀 전의 사상최고 가격 36원에만 감격해 있다는 사실은 양계인이 너무 순박하고 경제를 모르는 체 체념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계산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현재 경영하고 있는 경우의 자본금은 산란계와 육

신 정 일 <유일농원 영업부장>

용계에 따라 차이가 나며 규모의 매소에 따라 다르지만, 산란계보다 소자본으로 착수할 수 있는 육용계의 경우 전업의 가장 기본적인 규모인 매주 1,000수 입추능력의 사업예를 생각할 때 자본금 내역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자료 1. 週 1,000首 입추규모의 자본금)

- 대지 1,000坪 × 坪당 2,000원 = 200만원
 - 계사 10동 (25坪단위) × 棟당 건축비 15만원 = 150만원
 - 초생추비 9,000首 × 首당 200원 = 180만원
 - 사료비 2,500kg × 120원/kg = 300만원
 - 인건비 2인 × 2개월 × 50,000원 = 20만원
 - 기타(약품과 기구류) 100만원
- 합 계 950만원

양계사업을 착수하는 길은 여러가지가 있다. 대지를 구입하는 대신 임대한다든지, 작은 규모로서는 月 1,000수 정도를 입추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자본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대지를 5,000평 이상도 구입하고 계사도 영구건물로 건축하며 입추규모도 매주 3,000~4,000수까지도 한다. 위에서 살펴 본 대표적인 경우 자본금이 약 1,000만원정도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이러한 양계산물을 소비자와 연결시켜 주는 유통과정의 시장상인의 경우 자본금이 대개 200~300만원 정도라는 사실과의 비교에서 컷대는 항상 상인쪽이 높으며 칼자루는 항상 시장쪽이 잡고 있다는 것이 이상한 현상의 두번째 사항이다.

이상한 현상의 세번째 사항은 서울시장

을 중심으로한 근거리 지역과 원거리 지역간의 양계산물에 대한 가격의 격심한 차이이다. 1977년 9월 18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지역과 시흥지역의 닭고기 시세 kg 당 740원(오토바이 중상) 과 충남 천안의 kg 당 640 원(차량 대상)과의 차이는 무려 100원이나 된다. 양쪽지역 모두 소비시장은 서울의 영등포나 남대문시장을 주로 하고 있다. 물론 차량을 사용하는 대상과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중상과의 차이점이나 원거리를 운반하는데 소비되는 비용등의 조건이 있지만, kg 당 평균 50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현재의 이러한 모든 유통과정상의 체제가 이상한 현상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닭상인이 치부하였다는 말은 76년도를 보내면서 부쩍 많아졌고, 지금은 시장의 상인이 으레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누구나 모두 알고 있다. 농협중앙회 축산과장 구분현씨가 월간양계 77년 9월호에 게재한 축산물의 유통마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표 1 과 같다.

〈표1. 상인조직 경유시 축산물 유통마진〉
(농협중앙회 구분현 축산과장 자료에 의함)

구분	농가 수취가격	유통 마 진		
		유통비용	순마진	계
소	81.0	12.4	6.6	19.0
돼지	71.4	10.2	18.4	28.6
육계	76.5	7.7	15.8	23.5

참고) 소, 돼지 : 전주-서울

육 계 : 서울근교 기준

실제 양계장에서 종사하고 있으며 시장 상인들의 동향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양계인이라면 대개 그들의 유통마진이 kg 당 평균 250원대 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러한 양계인들이 알고 있는 사실에 의하면 상인조직의 유통마진 폭은 kg 당 200원에서 300원까지 보통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균kg 당 250원이라는 유통마진은 700원씩의 농가 수취가격에 비하면 약 35.7%의 유통마진율을 나타내고, 농가수취가격을 kg 당 800원씩으로 계산할 때는 그 비율이 31.3%가 된다. 77. 9. 18 현재 실제 유통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 보면 천안에서 kg 당 640원에 수취된 닭이 대상으로부터 시장의 점포에 인도될 때 가격은 평균 690원, 즉 kg 당 50원이 일차유통과정에서 이윤으로 떨어지고, 점포에서 주부들의 손으로 판매될 때 가격이 kg 당 900원대 즉 평균 200원 정도가 이차 유통마진을 형성한다. 이리하여 총유통마진 250원이 농가수취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9.1%나 되고, 출잡아 총유통마진을 200원으로 계산하여도 그 비율은 31.3%나 된다.

1975년까지 시장상인의 이익은 대개 kg 당 50~150원 정도로서 평균 100원대를 형성했었고, 양계장에서 의 그들 태도도 매우 부드러웠으며, 같은 시장내에서 他 점포와의 판매경쟁에도 신경을 써서 주부들의 발길을 끌기 위하여 많은 노력도 했었다. 이러한 유통마진과 시장풍조가 단시일내에 변모된 분기점이 바로 1976년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에 따른 시장단속과

유통혼란이었던 것이다. 유통마진 몇 십원으로 서로 다투며 주부들의 눈치를 살피던 상인들이 언제 문을 닫아야 될지 모르며, 자기의 판매사업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도 못하고 시장단속에 따른 유통혼란을 맞게 되자 지금까지 순박한 직업관념으로 잡념없이 종사해 오던 사업관이 하루아침에 바뀌게 되고 내일 당장 장사를 못하게 될 지 모르는 판에 되는대로 비싸게 팔자는 풍조로 변화되어 버렸다. 한번 이렇게 맛을 들이게 되자 이후 유통혼란이 가시고 정상적인 질서가 유지하게 되어도 그들의 장사태도는 이미 완전히 변해버린 뒤이었으며 동시에 他 식품에 대한 상대적인 싼가격으로 주부들의 발길은 비싼 마진을 지불하면서도 계속 끊어질 줄 몰랐었다. 100원의 이윤으로 2kg을 파는 것 보다 200원의 이윤으로 1kg을 판매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편했던 것이다.

물론 과거 농가수취가격이 kg당 300~400원 할 때의 유통마진 50원과 현재의 kg당 700~800원 할 때의 유통마진 200원은 꼭 같은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유통현상이 바로 이상한 현상중의 네번째 사항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논의하고 싶은 이상한 현상은 양계산업의 급격한 양(量)적인 팽창에 비하여 유통과정의 성장은 매우 느리다는 것이다. 지역간의 시세격차도 과거의 경우는 대개 20~30원 정도였으나 지금은 평균 50원대이며, 이러한 현상도 유통과정의 정제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왜

시장에 닭 상점이 더 늘어나지 아니하고 있는가? 닭이나 계란을 판매하는 상업이 분명하고 확실한 직업관으로 고착되지 못하는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가?

생산과 소비의 팽창에 유통규모의 팽창이 뒤따르지 못한다면 불원간 반드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리라.

● 단견(短見)과 장견(長見)

사업의 수익성이 좋아서 자금에 여유가 생겼을 때 은행에의 저축이나 장롱속에 보관하는 것 외에 지출의 형태에는 소비성지출과 생산성지출의 두가지 양상으로 반드시 나타난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시설이나 상품에 재투자한다든지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송수단인 차량을 확보한다는 등, 사업의 성장과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형태의 지출이 生産性 지출이다. 그러나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혹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승용차나 사치성 소비제품등을 구입하거나 더 나아가서 유흥과 같은 악성지출을 하게 될 때에는 소비성지출의 형태가 된다. 물론 주택이나 승용차 구입의 지출도 간접적인 생산성 지출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악성 소비성 지출에 대한 건전한 소비성 지출의 범수에 포함시킴이 더 정확할 것이다.

양계산업 특히 부로일러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양계인들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적인 호황의 결과 양호해진 그들의 자금을 입추규모확장등의 생산성 지출에도 투자하지만 대체적으로 소비성지출의 형태에 우선 많이 활용하고 있다.

소비성 지출의 한 형태인 주택구입의 예

를 고찰할 때 부동산투자로서의 지출이든 가 불안정된 생활을 안정하게 하므로서 노동효율을 향상시키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의 증가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소비성이라기 보다는 생산성 지출이라고 할 수 있다.

악성 소비성 지출에 대한 것은 論外로 하고 건전한 소비성이든 혹은 생산성이든, 또한 생산성 지출내에서도 여러가지인 자금 활용의 결과에 대한 효과는 어느 누구도 감히 단정적인 예측을 할 수는 없다.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돈의 활용에 대한 효과를 노리는, 즉 투자효율의 극대치를 항상 찾아다닌다

다만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악성보다는 건전한, 소비성보다는 생산성지출, 생산성 지출내에서도 현재의 사업에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투자효율을 고려한 자금의 활용이 가장 소망스럽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적인 사항을 충분히 반영시킨 투자의 여부로서 사업경영의 短見과 長見이 나올 수 있고 경영의 短見과 長見은 경쟁의 승리에 대한 열쇠가 되는 것이다.

● **계열화 체제 (Integration System) 의 시발점**

우리나라의 축산물 특히 양계산물 생산자들이 항상 주기적으로 겪고 있는 유통 불안은 생산물의 특성과 그에 따른 現 유통체제의 성격상 생산과 공급개념의 차이 점을 가름할 수 없는 현실에서 모두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양계산물은 생산되면 바로 시장으로 판매 즉 공급 되어

야 한다. 냉동저장 등을 통하여 비축하므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공급을 적절히 조정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육계업자가 보유한 닭의 연령이 8주 이상 되었을 때 이는 반드시 시장으로 판매되어야 하는 것이다. 경제학의 마켓팅(Marketing)에서는 분명히 생산의 개념과 공급의 개념을 다르게 풀이하고 있고, 실제 他 産業의 모든 상품들은 이렇게 하므로서 생산자가 그들의 상품에 대한 판매를 안전하게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다.

생산과 공급의 뜻을 분명히 할 수 없는 현재의 축산물 유통체제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현상들에 대해서는 일반 양계인들도 모두 잘 알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양계인 스스로는 할 수 없으며 오직 당국이나 단체등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과 함께 해결해주시기를 모두가 바라고만 있다는 점에 바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사업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것이며, 돈벌이문제는 우리의 최대관심사인데도 불구하고 막연히 “어떻게 해주겠지”하고 他의 힘에 의해서 직접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현재 축산인들의 마음인 것이다.

물론 他 업계가 당국의 정책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듯이 축산인들도 각종 조세공과금을 납부하므로 유통 문제와 같은 큰 사항의 해결은 마땅히 당국에서 해줘야 하며 외국에서도 정부 주도형으로 거의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성과 직접성을 타진할 때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유통의 불안으로 막상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우리 양계인들이며 당국이 불덩어리를 집어 없애줄 수 있는 불집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발등이 뜨거운 사람은 우리이기 때문에 급하게 사용할 곳이 너무 많아 언제 우리 차례가 될지도 모르는 “바쁜 당국의 불집계”를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 있겠으며, 이를 기다려 불집계로 불덩어리를 제거해 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발을 흔들어 불덩어리를 털어버려야 우리의 발에 상처가 나지 않을 것이 아니겠는가!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3대명언 중의 하나로서 “他人에게 관대하고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라”라는 말이 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오다가 시아버지 요강을 차서 깨어졌을 때, 며느리는 자기의 부주의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눈물을 흘려 사죄하고, 시어머니는 “그런일은 내가 어디 잘 치워야 하는건데 그것은 내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시어머니 자신이 책임을 맡으려 하고, 시아버지는 시아버지대로 “내가 사용한 요강을 괜스레 하필 그곳에 가져다 놓아서 너가 발로 찼으니 너 잘못이 아니고 주책없는 이 시애비의 잘못”이라면서 자기가 책임을 진다.

어떤 사건에 대한 잘못의 책임은 자기에게 지우고, 잘한 영광은 남에게 주며, 자기에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히 자기자신을 벌하지만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용서해 준다는 것이 바로 위 명언의 뜻이 아닌가 한다.

유통의 불안정이라는 문제점을 놓고 볼 때 “깨진 요강에 대한 책임”과 같이 당국은 당국대로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느끼고 가능한한,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하려고 노력하며, 생산자는 생산자 나름대로 이는 바로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다라는 자세로 임할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문제해결이 될 것이며 얼마나 흐뭇한 정경이 될 것인가!

돈벌이는 바로 생산자 우리의 문제이다 답답한 사람이 먼저 우물을 파서 먹으면서 흙구덩이 우물을 시멘트우물로 바꾸고 파이프를 놓아 양수모터를 설치해 갈 때 당국은 도와준다는 협조의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당국이 우리의 이 난제를 충분히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이러한 사정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면, 이 유통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현한 이치이다. 외국의 미끈한 유통체제를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착수할 시기가 이제는 온 것이다.

계열화체제(Integration system)라는 어휘는 대개 6~7년전부터 특히 선진국을 자주 방문하고 돌아오는 畜産識者들의 입으로부터 오르내리기 시작하였다. I.S를 강조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전근대적인 축산형태에 머무르고 있었던 일반 축산인들은 이러한 이론에 고개를 끄덕거리면서도 도대체 I.S가 무엇인지, 왜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납득하지 못한 채 생소한 단어에 대한 이해를 실제 피

부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였던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축산형태가 기업화하고 사업의 번영에 장애물들이 요소요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일부 관심있는 사람들로부터 계열화체제에 대해서 다시 거론되기 시작하고 있다.

사실 계열화체제란 외국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더욱 사업을 확장시키고 더욱 돈을 획득하기 위한 경영 방법을 강구한 결과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돈벌이 체제에 불과한 것이다. 다만 외국과 같은 규모와 정서적인 체인(Chain 계열)을 구비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힘으로 미치지 못하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그러한 것이 꼭 현재 우리의 상황에 알맞는지의 여부는 의문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나라대로의 적절한 형태와 규모로서 계열화체제의 시작을 할 수가 있을 것이며 지금은 바로 이것을 시도할 시기가 온 것이다.

I.S.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자체경영에서의 이윤획득보다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축산물에 대한 판매를 불안정한 시장상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안심하고 할 수 있다는 것과 궁극적으로 축산

물도 他 상품과 같이 생산과 공급의 개념을 완전히 분리시킬 수 있는 경영 체제를 이룩할 수 있다는 점이다.

× × ×

일반양계인이 개인적으로 시장에 판매 점포를 확보한다든지, 양계단지나 조합으로 이루어진 양계인들이 그들의 규모에 알맞게 유통경로를 확보한다는 것은 소득자금을 직접적으로 생산성 지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성 지출에 비하여 월등히 바람직한 것이다. 이것이 점점 확장발전할 때 바로 외국과 같은 정서적인 I.S.로 될 것이며, 이를 위한 지금의 조그만 투자와 경영이 바로 계열화체제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

생산자가 시장에 점포를 가지고 도계와 저장에 관심을 가질 때, 이는 투자효율 높은 생산성 지출이며, 이상한 현상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며, 양계산물에 대한 생산과 공급의 개념을 분명히 하므로써 생산물판매를 안전하게 하는 길이며, 축산물이 공처리법과 같은 강제성에 의한 유통변경에 따른 유통혼란을 피하면서 점진적으로 우리나라 유통의 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계열화 체제(Integration System)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

